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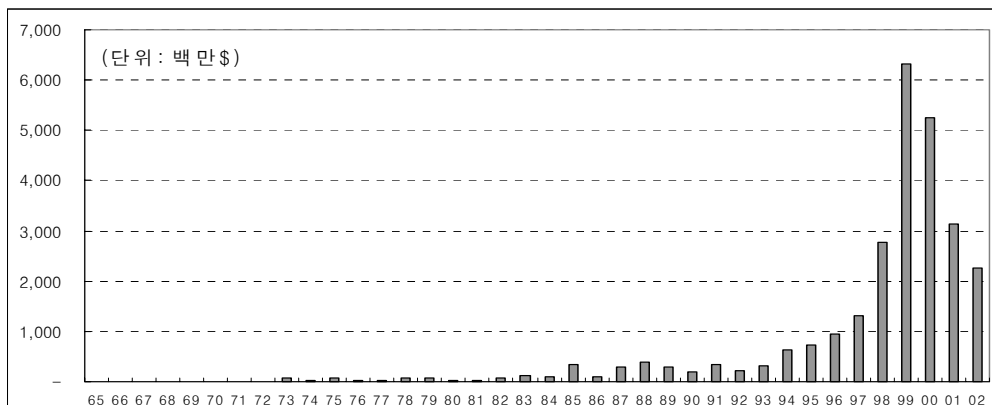
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이대로 괜찮은가

○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

-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자금의 유입 외에 고용창출, 기술이전, 지역경제활성화, 국가 및 서울의 이미지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국가나 도시경제에 중요함
- 이같은 인식에서 투자유치의 중심도시가 되기 위한 도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 국제금융거점도시 조성계획도 직·간접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임

○ 1999년을 기점으로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급격한 하락세

-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60년대부터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왔으며,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에 의해 1999년의 경우 투자규모가 전년도 대비 2.3배에 달하기도 함
- 그러나 최근 3년 동안(1999-2002년)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급격한 감소세를 보여 2002년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



* 자료: 외국인투자 지원센터(KISC) 내부자료

[그림]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연도별 현황

- 최근 국내경제의 불안과 중국 주요 도시·지역들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 등으로 투자 대상지역으로서 서울의 상대적인 매력력이 감소한 것이 원인

○ 전국대비 서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금액의 31.4%, 투자건수의 49.5%를 보임(1962-2002년)

- 투자건수에 비해 투자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투자건수 기준으로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의 50.2%가 투자건 당 평균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역업과 기타서비스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임

[표] 전국 대비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(1962~2002년 누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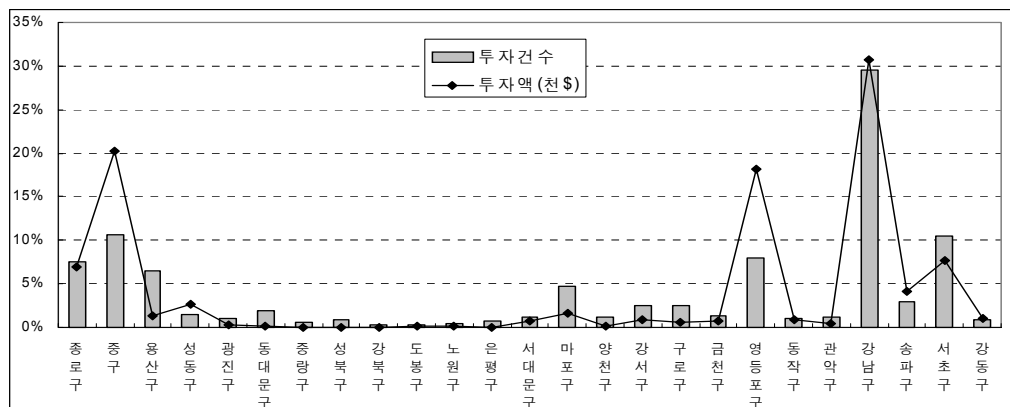
	서울	전국	서울비중
투자건수	11,724	23,677	49.5%
투자액(천\$)	26,596,836	84,649,570	31.4%

* 자료: 외국인투자 지원센터(KISC) 내부자료

○ 서울 외국인직접투자액의 절반이 금융·기타서비스업에 집중

- 1962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약 266억 달러이며, 이 중 금융업(26.0%)과 기타서비스업(24.2%)이 수위를 차지함. 그 다음 도소매업(8.3%), 보험업(7.1%), 숙박업(6.8%), 무역업(6.5%), 전기및전자(5.6%), 기타제조업(2.1%), 운수및창고업(2.1%), 부동산업(1.7%)의 순위임
- 투자건당 투자액은 전산업 평균이 2.3백만 달러이며, 그중 전기및가스업이 45.3백만 달러로 가장 높고, 숙박업(20.7), 보험업(16.2), 금융업(10.7)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음. 반면 무역업의 경우 투자건수는 35.8%('62-'02년)로 가장 높지만 투자건당 평균 투자액은 0.4백만 달러로 매우 낮음

- 국가별 투자금액은 미국(26.6%), 말레이시아(16.6), 일본(15.7)의 순임
 - 그 다음으로, 독일(8.8), 네덜란드(6.7), 홍콩(3.2), 캐나다(2.8)가 상위 7대 투자자로 나타남
 - 말레이시아, 네덜란드, 홍콩, 캐나다 등은 기타서비스업과 금융업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반면, 미국은 기타서비스업과 도소매업, 일본은 숙박업과 기타서비스업, 독일은 금융업과 보험업에 투자하고 있음
- 외국인직접투자는 강남구(30.8%)가 수위이며, 그 다음은 중구(20.2%), 영등포구(18.1%), 서초구(7.7%), 종로구(6.9%)의 순임(투자액 기준)
 - 강남구는 주로 기타서비스업(45.5%)과 금융업(16.6%), 무역업(10.7%)에 집중되고 있음
 - 중구는 45.7%가 금융업에 집중되고 있으며, 도심이라는 입지특성에 의해 다른 지역과 차별적으로 숙박업(15.1%)에 대한 투자규모 및 비중이 높음
 - 영등포구도 여의도를 중심으로 금융업(50.4%)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금융업 투자총액에 있어서는 중구에 이어 두 번째임



* 자료: 외국인투자 지원센터(KISC) 내부자료

[그림] 서울시 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(1962~2002년 누계)

- 서초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주로 기타서비스업(31.7%)에 집중되는 가운데, 보험업(28.5%)에 대한 투자가 높음
- 종로구는 금융업(37.3%)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고,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운수및창고업(15.1%)의 투자율이 높음

○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의 과제

- 최근 3년 사이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서울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투자 대상지로서 서울의 경쟁력이 중국 등 주변국 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,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지원이 필요함
- 첫째, 중앙정부와 협조를 통해 선진기술의 국내이전 및 설비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, 관련법령 정비,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법제지원이 필요함
- 둘째, 오피스, 정보기술 네트워크 등 도시기반 인프라 조성, 산업클러스터에 기반한 전문화된 산업환경 등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한 최적의 생산환경 조성이 필요함
- 셋째, 편리하고 품격있는 여가 및 문화시설, 양질의 교육기관, 쾌적한 주거환경 등 외국인 투자자들이 생활하고 거주하기에 적절한 생활환경의 조성이 필요함
- 넷째, 최적의 제도환경, 최고의 생산환경, 양질의 생활환경을 갖춘 경쟁력 있는 외국인 투자 대상지로서의 서울을 세계적으로 홍보·마케팅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함

김광선 ·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위촉연구원

kskim@sdi.re.kr